

## 『개벽』의 종교적 사회운동론과 일본의 ‘종교철학’\*

허 수\*\*

### [국문초록]

1920년대 ‘문화정치’기 천도교 청년층은 『개벽』을 창간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개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천도교 교리가 ‘사상적 포괄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것을 사회일반적 언어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개벽』의 체제와 내용은 이 목적에 따라 편성되었다.

『개벽』의 목차공간은 ‘계몽의 영역’·‘소통의 영역’·‘대중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개벽』 주도층은 ‘소통의 영역’에서 서구 근대사조와 ‘인내천’에 관한 논설을 게재하는 한편, 핵심공간인 ‘계몽의 영역’에서는 세상을 ‘상호동일성’의 관계로 보는 인식과 ‘활동주의 도덕’이라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노력은 다음 단계에 가서 ‘주의’(主義)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이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1). 이 글은 2014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2014. 8. 7)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주제어: 개벽, 종교적 사회개조, 목차공간, 主義, 상호동일성, 활동주의 도덕, 현상극실재론

*Gaebyeok*, religious social remodeling, contents, principle(ism), activist ethics, theory of ‘phenomenon viz reality’

돈화 등은 ‘계몽의 영역’ 중 가장 핵심적인 글인 ‘대표논설’을 통하여 당시 유행하던 주류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사람성주의’, ‘범인간적 민족주의’, ‘적자주의’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때 이전에 보였던 ‘상호동일성’ 인식과 ‘활동주의 도덕’은 ‘주의’ 형성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런 두 기준은 이돈화가 1910년대 후반에 도입한 일본의 종교철학인 ‘현상즉실재론’을 종교적 사회운동의 실천 담론으로 전유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20년대 『개벽』의 탄생과 지속에서 ‘현상즉실재론’의 영향은 큰 것이었으나, 이돈화와 『개벽』에서 그것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다. ‘현상즉실재론’은 『개벽』의 통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층위, 즉 종교의 층위와 사회의 층위를 결합하고 사라지는 매개물로 작용하였다.

## 1. 머리말

근대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일본의 근대지식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첫 시도로,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계몽적 종합월간잡지 『개벽』(1920-1926)이 ‘미디어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종교철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식민지기의 사회 변화를 한국의 근대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서양 근대문물의 수용 창구로 주목하고 서구 및 일본과 식민지 조선 간의 문화적 교섭양상을 규명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 문제를 『개벽』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있다. 그리하여 서양 및 일본 근대사상이 『개벽』 지면에 소개되는 양상, 천도교의 종교사상과 외래 사상의 접합 양상, 『개벽』 편집인이자 천도교 이론가인 이돈화(李敦化, 1884-1950)가 일본의 ‘현상즉실재론’(現象即實在論) 철학을 도입하여 천도교의 종교적 사회개조론을

형성한 과정 등을 규명하였다.<sup>1)</sup> 그런데 이런 연구는—비록 이돈화가 『개벽』의 편집인으로서 그 논조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현상즉실재론’ 철학의 영향관계를 이돈화라는 ‘개인’ 차원에 국한하여 살펴보았으므로 그 철학이 한국에 끼친 영향을 제한적으로만 고찰한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개벽』이 미디어 주체로 탄생·지속하는 데 ‘현상즉실재론’ 철학이 깊숙히 개입하였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개벽』을 미디어 주체로 간주한다는 것은 첫째, 『개벽』의 내용을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나 주도층의 정치적 입장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매체로서의 복합성과 상대적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둘째, 주체형성은 창간이라는 일회적 사건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생산 과정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것은 『개벽』이 사회적 매체로 인정받고자 ‘종교성의 억제와 정치성의 억압’을 감수하였던 사실과 관계 깊다. ‘첫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식민지 매체 연구에서 많은 성과가 나온 바 있다.<sup>2)</sup> ‘둘째’와 관련한 본격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도 선행연구에서 『개벽』 매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둘째’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한 바 있으나,<sup>3)</sup> 그것은 분석적 범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인상기적 설정’에 머문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목차공간과 기사배열 등 『개벽』의 ‘신체’와 그 영역에 발표된 글들을 살펴보고,<sup>4)</sup> 나아가 ‘주의’(主義) 등 『개벽』의 ‘자아’에 해당

- 
- 1) 허수(2011), 『이돈화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장·3장 참조.
  - 2)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다음이 있다. 최수일(2008), 『『개벽』 연구』, 서울: 소명출판; 임경석·차혜영 외(2007),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 3) “식민지 시기에 창간된 미디어 ‘주체’로서의 『개벽』은, 근대 주체일반이 ‘去勢의 위협’을 통과하는 경험과 비슷하게, 탄생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 사회로부터 ‘정치성의 억압’, ‘종교성의 억제’를 강요받았다.”(허수(2011), 『표상공간 속의 쟁투—『개벽』의 표지·목차 분석』,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서울: 푸른역사, p. 114).
  - 4) 여기서 『개벽』의 ‘신체’라는 표현은 『개벽』을 미디어 주체로 보는 문제의식의 산물로, 『개벽』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보다는 그것이 목차 속에서 배치된 양상과 형식

하는 핵심적인 논설의 지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신체’와 ‘자아’를 포괄하는 『개벽』의 미디어 주체 형성에 ‘현상즉실재론’ 철학이 연관된 양상과 그 의의를 고찰하여 한국에서 근대가 형성되는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종교적 사회운동과 『개벽』의 신체

『개벽』은 ‘문화정치’기 천도교계가 주도한 종교적 사회운동의 간판 매체였다.<sup>5)</sup> 『개벽』은 1920년 6월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로 발간되었으나, 창간호부터 잇달아 2회나 총독부에 압수당하는 등, 발행금지 34회, 정간

---

등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개벽』의 ‘신체’와 『개벽』의 ‘자아’를 서로 대비시켜 사용하였다.

- 5) 그동안 『개벽』은 『동아일보』와 더불어 ‘문화정치’기에 문화운동을 주도한 2대 중심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평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개벽』을 당시 천도교가 전개한 ‘종교적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개벽』을 문화운동의 중심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개벽』의 의의를 민족운동과의 원근법 속에서 보는 민족운동론적 관점의 산물이다. 이 관점에서는 1920년대 문화운동과 자치운동의 성격을 ‘先실력양성 後독립’에 입각한 실력양성운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일제의 식민통치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 타협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그것은 『개벽』이 당대 민족운동에서 차지한 위치와 역할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벽』 주도층의 주관적 지향을 사회현실과 결부시켜 개성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면 『개벽』을 근대 전환기 동학·천도교라는 신흥 종교집단의 형성 및 활동과정에서 조망하는 통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실천활동의 핵심은 종교적 사회운동이었다. ‘종교적 사회운동’이라는 관점에는 종교적 신념의 사회적 확산이 가진 개혁적 함의와, 당대 사회에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 인정투쟁의 성격이 병존해 있다. 이는 ‘근대성 형성’의 관점에서 한국 종교의 형성과 근대적 정립, 그리고 對사회적 실천을 살펴보는 접근에 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천도교청년회가 주도하여 발간한 『개벽』은, 1860년 동학의 창립과 1894년 동학 농민전쟁, 1904-5년의 개화운동과 천도교로의 개칭, 3.1운동에 뒤이어 ‘문화정치’기 천도교의 종교적 사회운동이 물질화된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1회, 별급 1회, 발행정지 1회를 받아서 결국 1926년 8월 폐간되었다.<sup>6)</sup> 『개벽』 주도층은 항상 식민당국의 검열을 의식해야 했다.<sup>7)</sup> 이른바 ‘정치성의 억압’은 『개벽』이 식민지기 미디어 주체로 탄생·지속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관문이었다. 『개벽』이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은 ‘종교성의 억제’였다. 천도교청년회가 『개벽』의 발간 주체였지만 종교계 잡지인 『천도교회월보』와 달리 계몽적 종합월간지를 지향하였으므로, 『개벽』의 논조에서 종교적 색채는 가급적 억제되고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애썼다.

그런데 사실상 정치성과 종교성은 『개벽』을 『개벽』답게 만든 요소이기도 했다. 그 근원에는 ‘종교적 사회개조’의 지향이 있었다. 『개벽』의 창간을 주도한 천도교청년층은 이미 1910년대 말부터 종교적 사회개조를 지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폐해와 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들을 여타 세력과 구별하였다. 과학과 경쟁의 폐해가 만연한 사회를 개조하려면 평화적 원리를 가진 종교가 나서야 하고, 종교 중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舊)종교 대신 새 시대에 걸맞게 ‘사상적 포괄성’을 갖춘 천도교가 책임자라는 것이다.<sup>8)</sup>

6) 誠巖學人(1969), 『開關誌』에 대하여-『開關』의 影印本에 붙이어-, 『개벽』 1 영인본(도서출판 박이정본) 해제, p. 4에서 재인용.

7) ‘『개벽』 주도층’은 『개벽』의 창간과 발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을 가리킨다. 대부분 천도교청년층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이돈화와 김기전이 핵심 인물이었다. (조규태(2007), 『『개벽』을 이끈 사람들』,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pp. 90-92 참조). 특히 이돈화는 『개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논설을 많이 썼다(허수(2011), 『이돈화 연구』, pp. 89-93).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개벽』을 주도층과의 관련성 속에서 거론하면서도 사상적·이론적 차원에서 『개벽』을 파악할 때에는 주로 이돈화의 논설에 주목하였다.

8) ‘씩어빠진 옛 종교로는 금일 문화의 人心思想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어서 그 자격은 ‘최신 진리를 포용하고 온갖 종교의 이상을 종합한 新宗教’의 몫이었다(이돈화(1919), 『개조와 종교』, 『천도교회월보』 112, p. 4). 이때의 ‘신종교’란 천도교를 가리켰다.

이와 관련하여 이돈화는 현대종교란 ‘신(神)·우주와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또한 천도교 교리는 ‘현대적 최후 大 사상’이며 ‘현대 제반 활동, 즉 종교·철학·과학·도덕·정치 등 각종 활동을 통일 조화’한다고 설명하였다.<sup>10)</sup>

종교적 사회개조의 지향은 『개벽』의 창간 동기이자 목적이 되었다. ‘정치성의 억압’과 ‘종교성의 억제’는 그러한 지향의 과도한 분출을 꺼린 정치·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정치성이 법 테두리 내에서 ‘순치’(順治)되면 독자들의 외면을 받기 마련이듯이, 과도한 사회화로 종교성이 표백된다면 『개벽』의 존재의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개벽』의 종교적 사회개조 지향은 완전히 억압될 수도, 완전히 허용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개벽』의 ‘욕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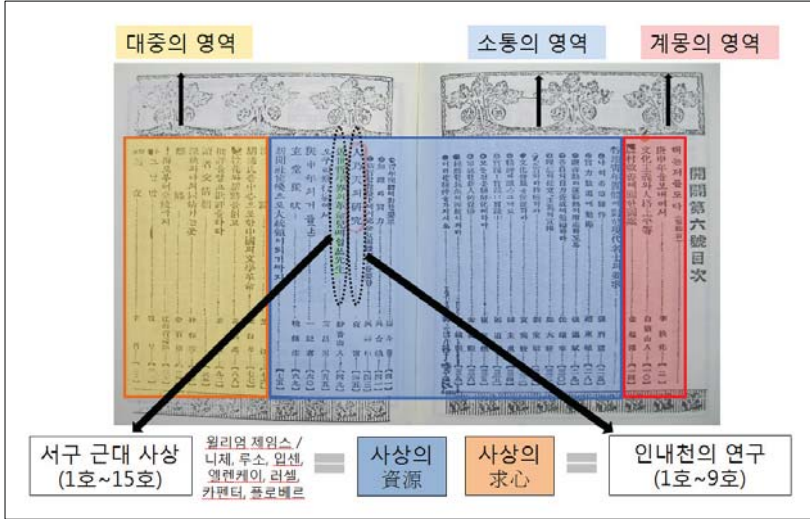
『개벽』에서 그러한 욕망은 ‘사상적 포괄성’을 사회일반적 언어로써 확보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개벽』의 신체는 목차상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계몽의 영역’·‘소통의 영역’·‘대중의 영역’으로 분할되었다.<sup>11)</sup>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세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계몽의 영역’은 ‘주요논설’이 밀집해 있는 목차 앞 부분의 공간을 가리키는데 대체로 설문조사와 같은 ‘非논설’류 기사로 시작하는 ‘소통의 영역’과 경계를 이루면서, 편집진의 對사회적 발언·주장을 담고 있다. ‘소통의 영역’은 앞으로는 ‘계몽의 영역’과, 뒤로는 ‘대중의 영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설명문·각종 조사·일반논설·시사 등에 관한 기사를 통해 독자들과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의 사회적 소통을 도모하는 곳이다. ‘대중의 영역’은 주로 문예작품이나 평론 기사 등을 모아놓은 목차의 마지막 공간을 가리키는데, 창

9) 이돈화(1918), 「종교의 兩 측면」, 『천도교회월보』 91, p. 10.

10) 夜雷(이돈화)(1918), 「迷의 신앙으로 覺의 신앙에」, 『천도교회월보』 97, p. 5.

11) 3개 영역의 구체적인 배치 양상은 조금 뒤에 제시될 <그림 1>을 참조.



[그림 1] 『개벽』의 세 영역과 사상 소개 양상(『개벽』 6호)

작물이나 번역물, 독자투고 작품 등을 게재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잡지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가는 곳이다.<sup>12)</sup>

발간 초기에 『개벽』 주도층은 ‘소통의 영역’을 빌려 사상의 자원(資源)들을 소개하였다. 『개벽』 창간호부터 15호까지 니체, 루소, 제임스, 입센, 엘렌케이, 러셀, 카펜터, 플로베르 등 서구 근대사조를 소개하는 기사가 거의 빠짐없이 실렸다.<sup>13)</sup> 이와 동시에 창간호부터 9호까지 이돈화는 외래사조를 수용하는 구심점으로 ‘인내천’에 관한 논설을 연재하였다.<sup>14)</sup>

한편, 『개벽』의 핵심 공간인 ‘계몽의 영역’에서는 ‘인내천’의 종교적 관점으로 사회현안을 포괄하는 착목점이 제시되고 있었다. 인식의 측면에서 그들은 ‘신과 인간’, ‘사람과 세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두 항들

12) 허수(2011),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p. 91.

13) 허수(2011), 『이돈화 연구』, p. 94.

14) 허수(2011), 『이돈화 연구』, p. 107.

을 각각 ‘상호동일성’의 관계로 파악하는 한편,<sup>15)</sup> 실천의 측면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활동주의 도덕’으로 추구하였다.<sup>16)</sup> 이런 노력은 ‘계몽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권두언/사설’과 대표논설<sup>17)</sup>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상호동일성’에 관한 인식을 다음 인용문에서 살펴보자.

- a. 哲人은 말하되 **다수 인민의聲은 곧 神의聲**이라 하였나니 ... **神은 無何有의 一物로 불어 진화를 시작하였도다. ... 사람은 신의 진화한 자로**<sup>18)</sup>
- b. **사람과 세계는 결코 나누어 볼 것이 아니었다.** 사람으로 된 세계, 세계로 된 사람 둘이 아니오 오직 하나일 뿐이었다. ... **세계를 알아 곧 사람을 알아요 또한 자기를 알아**였다.<sup>19)</sup>
- c. **사회는 개인의 집단이 아니오 자기의 延長이다.**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일할 最徹底한 관념은 이와 같이 사회를 超個人我로 보아 사회를 자기의 인격 내에 섭취함에 至하여 始生할 것이다. 우리의 참 인격은 無限大이다. 자기인 동시에 사회이며 우주이다. 고로 우리는 **사회를 통하여 始로 자기의 全貌를 窺하는 것**이다.<sup>20)</sup>

15) ‘상호동일성’이라는 용어는 이 글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는 두 용어를 별다른 논리적 매개물 없이 ‘함’이나 ‘곧’ 등으로 동일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용례는 조금 뒤에 제시할 것인데, 이런 인식태도는 천도교의 宗旨에서 사람과 하늘을 ‘乃’(곧)로 연결하는 ‘人乃天’과 밀접하다고 생각된다.

16) ‘활동주의 도덕’라는 용어는 이돈화의 ‘활동주의의 도덕’이라는 표현에서 차용하였다. 그는 옛 도덕이 인간의 본능을 위축시킨 보수적 도덕인 데 반해, 현대의 도덕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진보적 도덕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맥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이돈화(1921), 『大食主義를 論하노라(其一)』, 『개벽』 7, pp. 11-12).

17) 여기서 ‘대표논설’은 권두언과 사설을 제외하고 제일 첫머리에 위치한 논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18) (필자미상)(1920), 『창간사』, 『개벽』 1, p. 2.

19) (필자미상)(1920), 『사설: 세계를 알라』, 『개벽』 1, p. 3.

20) 김기전(1921), 『사회 봉공의 근본의의』, 『개벽』 10, pp. 6-7.



창간사(a)에서는 ‘인민(사람)은 곧 神’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뒤 그 동일성을 ‘진화’로써 매개하였다. 창간호 사설(b)에서는 ‘사람은 곧 세계’라 하면서 이로부터 ‘앞’ 즉 인식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개벽』 10호에 실린 김기전의 논설(c)에서는 ‘개인(자기)은 곧 사회’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인격’을 양자의 매개항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세 인용문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두 항의 내용과 양자를 매개하는 요소들은 각각 다르지만, ‘신=인간’, ‘사람=세계’, ‘개인=사회’처럼 두 항을 상호동일성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공통적이었다. 이러한 상호동일성의 인식은 ‘사람=하늘’이라는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다음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실천적 개입지점을 ‘활동주의 도덕’으로 제시하는 대목을 다음 인용문에서 살펴보자.

- a. 目下 人人의 주의를惹하는 者는 **노동 문제**이었다. 그리하여 此 문제가 單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事는 頗히 注意를 加할 者인데 즉 **경제문제가 도덕문제와 명료히 결합하였던 것**은 何人 이든지 疑치 못할 사실이었다.<sup>21)</sup>
- b. 과연 **조선인의 민족성은 옳이니라**. ... 원래 **人之 心은** 一의 靈體이나 ... **종교도덕적 方面으로 나타날 時는 이를 옳이라 칭하며** ... 금후의 세계는 반드시 **도덕 승리의 세계**가 되리라. 도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되리라.<sup>22)</sup>
- c. 由來의 도덕관은 사람의 본능의 慾, 즉 靜的 方面을 \*\*[억압-인용자]함이 과도하였스며 又 실제활동의 原力을 위축함이 多大 하였고다. ... 고로 吾人은 大食主義上에서 도덕의 관념을 左와 如히 개정코져 하노라. ... 도덕의 이상적 목표는 究竟 **活動主義**에 置치 아니치 못할 것.<sup>23)</sup>

21) (필자미상)(1920), 『社說 人道正義 發展史로 觀한 今日以後의 모든 問題』, 『개벽』 4, p. 7.

22) 이돈화(1920), 『조선인의 민족성을 논하노라』, 『개벽』 5, pp. 4-8.

- d. 사람이 적어도 社會의 一員으로 社會의 生活을 하며 社會의 恩澤을 입고 社會의 幸福을 받는 以上에는 그에 따라 **社會의 奉供이라는 卽 社會를 爲하야라는 公平한 道德性**을 가지지 아니 하야서는 아니되겠다.<sup>24)</sup>

『개벽』 4호의 사설(a)에서는 노동문제가 도덕문제와 결부되었다고 보았고, 『개벽』 5호의 이돈화 논설(b)에서는 이러한 도덕을 ‘선’(善)과 일치시키고 나아가 ‘선’을 조선인의 민족성으로 설정함으로써 ‘도덕’을 조선의 민족성으로 본질화하였다. 『개벽』 7호의 논설(c)에서 이돈화는 ‘대식주의’(大食主義)라는 용어를 만들어 활동주의 도덕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벽』 8호의 논설(d)에서 도덕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맥락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적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개벽』 주도층은 『개벽』의 초기 신체를 공간적으로 분할한 뒤 ‘소통의 영역’에서는 내·외부 사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계몽의 영역’에서는 ‘상호동일성’의 인식과 ‘활동주의 도덕’의 실천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현안과 이론적 자원의 접점을 예비적으로 마련하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이를 통해 ‘사상적 포괄성’에 한걸음 다가서고자 시도하였다고 생각된다.

### 3. 『개벽』의 자아, 3대 주의(主義)의 형성

『개벽』의 ‘사상적 포괄성’을 위한 작업은 초기 신체에서 공간별 역할 분담과 예비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천도교의 종교사상에 뿌리를 두면서도 계몽적 종합월간지로서의 보편성을 구비(具備)하여

23) 이돈화(1921), 「大食主義를 論하노라(其一)」, 『개벽』 7, pp. 11-12.

24) 이돈화(1921), 「민족적 체면을 유지하라」, 『개벽』 8, pp. 2-3.

[표 1] 『개벽』의 3개 논설 중 ‘주의’를 다룬 기사의 배치양상

호	발간 년월	계몽의 영역		
		권두언/사설	대표논설	주요논설 <sup>25)</sup>
6	20.12			문화주의(3) *
7	21.01			大食주의(3) *
10	21.04			사람性的 자연주의(3) *
17	21.11		사람性주의(2) *	爲他주의(3) **
23	22.05		公論의 人, 主義의 人(2) *	
25	22.07		인류상대주의(2) *	인격주의(3)
31	23.01		汎인간적민족주의(2) ***	
40	23.10			최수운주의(3)
42	23.12	-		사회주의학설대요(2)
45	24.03	사상과 주의(1) ***		
46	24.04		세력균형주의(2)	
55	25.01	-	赤子주의(1) *	
58	25.04	주의의 싸움(1) ***		
67	26.03	-	자유주의(1)	

비고:

- 표 안의 제목은 키워드이다. 발표순서별 전체 제목은 각주에서 밝혔다.<sup>26)</sup>
- 키워드 다음의 괄호 안 숫자는 목차의 맨 앞에서 몇번 째 기사인가를 나타낸 것이다.
- \* 표시된 기사 7개는 이돈화, \*\* 1개는 김기전, \*\*\* 3개는 필자 미상의 글이다.

『개벽』다움을 창출해야 했다. 이런 노력은 ‘주의’의 형성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개벽』의 자아를 창출하는 일이었다.

이미 『개벽』 3호의 사설에서 『개벽』 주도층은 “新紀元 하에 의한 靑

25) 여기서 ‘주요논설’은 ‘계몽의 영역’에 실린 논설 중에서 ‘대표논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6) 발간연월일은 <표 1>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집필자와 기사제목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白頭山人(이돈화), 「文化主義와 人格上 平等」; 滄海居士(이돈화), 「大食主義를 論하노라(其一)」; 李敦化, 「사람性的 解放과 사람性的 自然主義」; 李敦化, 「時代精神에 合一된 사람性主義」; 金起瀾, 「部分的 生活로부터 全의 生活에 聖者流의 驕慢한 爲他主義를 排除함」; 李敦化, 「空論의 人으로 超越하여 理想의 人, 主義의

인의主義를 제시하야써 新喜悅에 충만한 독자 여러 형제와 더불어 느낌을 같이 하고저 하노라”고 하여 이런 속내를 내비쳤다.<sup>27)</sup> ‘主義로써 永生을 얻는다’라는, 다소 비장한 각오도 천명되었다.<sup>28)</sup> 이러한 다짐과 약속은 빈 말에 그치지 않았다. 『개벽』이 폐간되기까지 각 호에 실린 권두언/사설을 포함한 최초의 3개 논설 중에서 ‘주의’를 표제어로 다룬 기사를 목차공간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총 16개 기사 중 ‘권두언/사설’ 2개와 이돈화 논설 7개, 김기전 논설 1개, 그리고 이돈화의 글로 여겨지는 『범인간적 민족주의』 1개를 합산한 11개는 『개벽』 주도층의 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벽』 주도층이 ‘주의’ 형성에 얼마나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 11개 중에서 보통명사적 용법이나 당시 유행하던 ‘문화주의’ 등의 용어를 제외하면, ‘대식주의’, ‘사람성의 자연주의’, ‘사람성주의’, ‘인류상대주의’, ‘적자주의’,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6개는 당시에 새로 만든 조어(造語)로 볼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돈화의 논설에서 나왔다. 즉 『개벽』의 ‘주의’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이돈화였던 것이다.

이돈화가 『개벽』에서 ‘주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그가 ‘사람성주의 → 범인간적 민족주의 → 적자주의’로 나아갔으며, 이런 ‘주의’의 계기적 형성과정은 각각, 당시 유행하던 주요 사조들, 즉 문화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수용과 차이화를 동반하

---

인이 되라」; 李敦化, 「人類相對主義와 朝鮮人」; 崔承萬, 「人格主義」; (필자미상), 「汎人間的 民族主義」; 李昌林, 「새삼스럽게 吟味되는 朝鮮의 崔水雲主義」; 사가이 · 도시히코 講演, 「唯物史觀과 唯心史觀, 社會主義學說 大要(其三)」; (필자미상), 「甲申年來의 「思想」과 壬戌年來의 「主義」」; 若嬰生, 「勢力均衡主義와 國際協調主義」; 李敦化, 「赤子主義에 돌아오라, 그리하야 生魂이 充溢한 人種國을 創造하자」; (필자미상), 「主義의 싸움이나 勢力의 싸움이나, 根本으로 問題되는 主義者의 試練不足」; 擎山(金明植), 「自由主義와 中産階級」.

27) (필자미상)(1920), 「사설, 吾人의 新紀元을 宣言하노라」, 『개벽』 3, p. 4.

28) (필자미상)(1921), 「권두, 영원의 生이나 영원의 死이나」, 『개벽』 12, p. 1.

[표 2] 3대 ‘주의’가 『개벽』의 신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계몽의 영역			소통의 영역	
권두/사설	대표논설	주요논설	內	外
창간사(1)			인내천의 연구(1-9)	니체(1-2) <sup>29)</sup>
	조선인의 민족성(5) <sup>30)</sup>			
		문화주의(6)		
		大食주의(7)		
		사람성자연주의(10)		
				러셀(11) <sup>31)</sup>
	사람성주의(17)	소년에게(17-21) <sup>33)</sup>		현대윤리사상 (16-17) <sup>32)</sup>
민족興替의 분기점(20) <sup>34)</sup>	新死生觀(20) <sup>35)</sup>			
		국민생활(22) <sup>36)</sup>		
	公論의 人, 主義의 人(23)	민족개조론(23) <sup>37)</sup>		
	汎인간적민족주의 (31)			
실행적 해방에(32) <sup>38)</sup>				
		사회주의학설대요 <sup>39)</sup> (40-45)	천도교인내천주의 (45) <sup>40)</sup>	
	의문(48) <sup>42)</sup>			
	천국행(49) <sup>43)</sup>			
		민족과계급(51) <sup>44)</sup>		
		사회사상사(51-56) <sup>45)</sup>		
	赤子주의(55)			
주의의 싸움이나(58) <sup>46)</sup>	사람의 힘과 돈의 힘(58)			
	사람성과 의식태(59) <sup>47)</sup>			
				프롤레타리아철학 (65-68) <sup>48)</sup>
			갑오동학과 계급의식(68) <sup>49)</sup>	
	생명의 의식화(69) <sup>50)</sup>	계급의식의 이론(69) <sup>51)</sup>		

비고

- 기사제목의 키워드를 표시한 것이다. 키워드 뒤의 괄호 속 숫자는 『개벽』의 호수이다. 연재 기사는 첫 기사 게재 호수와 최종 기사 게재 호수만 ‘.’로 표시하였다.
- 음영으로 표시한 기사 중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제외한 것은 이돈화가 쓴 글이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이돈화의 글로 ‘추정’된다.
- 소통의 영역을 ‘내’와 ‘외’로 표시한 것은, 기사 내용이 천도교적인 것은 ‘내’에 그 이외의 것은 ‘외’로 나누어보기 위한 편의적인 구분으로, ‘소통의 영역’이 실제로 이 두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 29) 小春(金起田)(1920),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개벽』 1; 妙香山人(金起田)(1920. 7),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리드리취, 니체 先生을 紹介함』, 『개벽』 2.
- 30) 이돈화(1920), 『朝鮮人の 民族性을 論하노라』, 『개벽』 5.
- 31) 妙香山人(金起田)(1921. 5), 『思想界의 巨星 卍-츄렌드·리셀氏를 紹介함』, 『개벽』 11.
- 32) 白頭山人(이돈화)(1921), 『現代倫理思想의 概觀, 東洋式 倫理思想의 變遷』, 『개벽』 16; 白頭山人(이돈화)(1921. 11), 『東洋式의 倫理思想 變遷概觀(續), 家庭倫理의 一端』, 『개벽』 17.
- 33) 魯啞子(이광수)(1921-1922), 『少年에게』(1-5), 『개벽』 17-21.
- 34) (필자미상) (1922), 『民族興替의 分岐點』, 『개벽』 20.
- 35) 이돈화(1922), 『吾人의 新死生觀, 意識과 死生=生命과 死生=靈魂과 死生』, 『개벽』 20.
- 36) 魯啞(이광수) 譯(1922), 『國民生活에 對한 思想의 勢力- (르본 博士 著 『民族心理學』의 一節)』, 『개벽』 22.
- 37) 李春園(이광수)(1922), 『民族改造論』, 『개벽』 23.
- 38) (필자미상)(1923), 『煽動의 解放으로브터 實行的 解放에 解放號 첫머리에 쓰는 것 이라』, 『개벽』 32.
- 39) 사카이·도시히꼬(1923), 『社會主義 學說 大要』, 『개벽』 40; 사카이·도시히꼬 (1923. 11),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立地, 社會主義學說 大要(其二)』, 『개벽』 41; 사카이·도시히꼬(1923. 12), 『唯物史觀과 唯心史觀, 社會主義學說 大要(其三)』, 『개벽』 42; 사카이·도시히꼬(1924. 1), 『唯物史觀의 『要領記』, 社會主義學說大要 =其四』, 『개벽』 43; 堺利彦(1924. 3), 『歷史進化의 事實의 說明. 社會主義學說講論(終結)』, 『개벽』 45.
- 40) 이돈화(1924), 『世界三大宗教의 差異點과 天道教의 人乃天主義에 對한 一瞥』, 『개벽』 45.
- 41) 小春(金起田) 抄(1924), 『世界社會主義運動의 史的 記述』, 『개벽』 46.

면서 진행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sup>52)</sup> 이 글에서는 이전의 연구성과에 기대면서도 이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 즉 2장에서 살펴본 『개벽』의 신체공간과 ‘상호동일성’ 인식 및 ‘활동주의 도덕’ 등과의 관련성에 유의하면서 ‘주의’의 형성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3대 ‘주의’가 『개벽』의 신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성주의’와 ‘범인간적 민족주의’, ‘적자주의’처럼 핵심적인 ‘주의’는 모두 ‘대표논설’로 배치되었다. 핵심 중의 핵심공간인 ‘대표논설’자리는 『개벽』적 자아의 산실(産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3대 ‘주의’는 대표논설 이외의 공간, 즉 ‘계몽의 영역’ 내의

- 42) 이돈화(1924), 「疑問」, 『개벽』 48.
- 43) 이돈화(1924), 「天國行」, 『개벽』 49.
- 44) 大山郁夫, YS (李星泰)譯(1924), 「民族과 階級, 現代 政治에 在한 民族과 階級과의 關係」, 『개벽』 51.
- 45) 玉川生(吳尙俊)(1924), 「近世社會思想史」, 『개벽』 51; 玉川生(吳尙俊)(1924. 10), 「싼·씨문의 社會思想과 푸리에의 新社會案, 그들은 이리케까지 우리에게 사색할 것을 주었다, 近世社會思想講述(其二)」, 『개벽』 52; 玉川生(吳尙俊)(1924. 12), 「溫情主義의 오벤과 社會主義의 오벤」, 『社會思想史』의 其3, 『개벽』 54; 玉川生(吳尙俊)(1925. 2), 「『오웬』의 計圖한 協和合力의 村」, 『社會思想史』의-其4, 『개벽』 56.
- 46) (필자미상)(1925), 「主義의 싸움이나 勢力의 싸움이나, 根本으로 問題되는 主義者의 試練不足」, 『개벽』 58.
- 47) 이돈화(1925), 「사람성과 意識態의 關係」, 「機械意識」, 「階級意識」, 「超越意識」, 『개벽』 59.
- 48) J Die'zen 原著 崔火雲 譯(1926), 「푸로레타리아 哲學, 안톤·판에코에 의한 序論」, 『개벽』 65; J Die'zen 原著 崔火雲 譯(1926.3), 「칸트 哲學과 불조아 思想, 푸로레타리아 哲學(其二)」, 『개벽』 67; J Die'zen 原著 崔火雲 譯(1926.4), 「헤겔 哲學과 데이켄, (푸로레타리아 哲學 (其3))」, 『개벽』 68.
- 49) 이돈화(1926), 「甲午東學과 階級意識」, 『개벽』 68.
- 50) 이돈화(1926), 「生命의 意識化와 意識의 人本化」, 『개벽』 69.
- 51) 裴成龍(1926), 「階級意識의 理論」, 『개벽』 69.
- 52) 허수(2011), 『이돈화 연구』, 3장·4장 참조.

‘주요논설’과 이웃 ‘소통의 영역’에 실린 기사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 예컨대 이돈화는 ‘사람성주의’ 형성과정에서, 먼저 외곽지대인 ‘소통의 영역’에 『인내천의 연구』를 연재하여 사회사상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그가 포괄하고자 하는 일본의 문화주의 철학을 ‘계몽의 영역’ 중 ‘주요논설’로 소개한 뒤, 이 양자와 동료 김기전 등이 소개한 외래사상을 선택적으로 접합시켰다. 그 계기적 과정은 ‘대식주의’ → ‘사람성(性)의 해방과 사람성(性)의 자연주의’ → ‘사람성(性)주의’로 전개되었다.<sup>53)</sup>

주목할 부분은 그가 포괄하려는 대상인 ‘문화주의’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상적 모체인 ‘인내천주의’가 각각 ‘계몽의 영역’과 ‘소통의 영역’으로 서로 구분되어 소개된 점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입장을 낮추고 사회적 방면의 사상을 앞세우는 『개벽』 주도층의 태도가 ‘주의’의 형성과정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다가 양자를 종합한 ‘주의’가 형성되면 이는 ‘대표논설’이라는 특권적 위치에 발표하였다. 이런 방식은 나머지 2개의 ‘주의’ 형성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에서는 ‘인내천의 연구’에 상응하는 기사는 없었지만 민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이광수의 여러 논설을 ‘계몽의 영역’ 중 ‘주요논설’ 공간에 소개한 뒤 마침내 『개벽』의 민족담론이라고 할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대표논설’로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적자주의’의 형성과정에서도 이돈화는 ‘소통의 영역’에서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적 입장을 언급하는 한편,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에 관한 사학

53) ‘사람성주의’는 사람들이 神과 偉人, 자연 등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 각자에게 고유한 性情을 기초로 협동과 실행, 희열과 자각으로 모든 理想을 직접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이돈화는 ‘사람(성)주의’의 ‘본령’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시대의 요구로써 시대의 정신을 체현하여 사람의 의의를 철저히 할 것, 둘째, 모든 사람의 理想은 사람 자기들을 토대로 해서 생긴 것이므로 理想과 사실을 사람 자기의 생활만족에 부합케 할 것, 셋째, 사람 자기들의 理想을 실현하려면 전 우주의 위력과 堪能을 사람 자기 중에 體認하여 사람 자기의 권능으로써 모든 福能을 증진할 것(李敦化(1921), 『時代精神에合一된 사람性主義』, 『개벽』 17, pp. 3-4).



은 주로 ‘계몽의 영역’의 ‘주요논설’ 공간을 이용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적자주의’는 이와 별도의 공간인 ‘대표논설’로 발표하였다.<sup>54)</sup> 비록 ‘주의’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주의에 대한 대응은 ‘적자주의’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전개형식은 이전의 3대 주의와 유사함을 <표 2>로부터 알 수 있다.

둘째, ‘주의’의 형성에서 이돈화는 유행하던 주류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기준은 역시 ‘상호동일성’과 ‘활동주의 도덕’이었다. 먼저 문화주의부터 살펴보자 이돈화가 소개한 문화주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인격있는 人으로 여러가지 자유로 발전케 하는 事가 즉 문화라 할 것이다. 즉 …… 여러 가지 人의 활동력이 자유로 발달하여 向上에 向上을 가하는 발전이었다. 따라서 此 문화로써 생활의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즉 문화주의라 할 것은 多言을 不要할 것이었다.<sup>55)</sup>

b. 如斯한 문화는 …… 경험적 내용을 초월한 선천적 기초의 上에 立한 것일지며 … 선형적 자아 즉 인격에 치중치 아니치 못할지르다. …… 그리하여 此와 如한 인격의 上에는 평등관이 성립치 아니치 못할 것이로다.<sup>56)</sup>

c. 보통의 도덕이 일상 행위의 규정에 관한 실제적 의의라 함에 대하여 인생의 순수한 이상적 생활을 문화라 云하는 어구로써 표현함이 편리치 아니할까 생각함.<sup>57)</sup>

54) 물론 3대 ‘주의’의 도출과정에서 외부 사조와 천도교 사상 간 접합의 중간단계가 제시된 것은 ‘주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사람성주의’의 경우 그 중간단계는 ‘주요논설’에 제시된 데 반해, 나머지 2개의 ‘주의’에서는 그것이 ‘대표논설’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본문에서 설명한 그러한 차이에 비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55) 白頭山人(이돈화)(1920), 『文化主義와 人格上 平等』, 『개벽』 6, p. 12.

56) 白頭山人(이돈화)(1920), 『文化主義와 人格上 平等』, 『개벽』 6, p. 13.

57) 白頭山人(이돈화)(1920), 『文化主義와 人格上 平等』, 『개벽』 6, p. 12.